현불논단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뜻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올해 연등회, 일상회복 알리는 축제
시민 · 외국 관광객, 환희의 박수 보내
부처님 탄생게, 중생 제도 서원 담겨
고해 벗어날 지혜를 우리에게 설하셔

마음 아름다우면 세상이 부처님 세상
어두운 사람에게는 깜깜한 지옥이다
"고통 벗어나는 게 즐거운 삶" 상기를
부처님오신날 지혜 연등 밝히는 이유

지난 5월 20일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연등행렬이 4년 만에 코로나19 규제가 해제돼 장엄하고 아름답게 봉행했다.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마스크 없는 일상회복이 이루어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쾌유와 승리를 선언하는 축제였다. 동대문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 조계사 앞까지 대규모 연등행렬을 맞이한 시민들은 기쁨과 환희의 박수를 보냈다.

더군다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2020년 12월 16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관심사였다.

만해 한용운은 부처님오신날을 '성탄'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찬양했다. "부처님 나심은 온 누리의 빛이요 뭇 삶의 목숨이라 이곳과 저 땅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에 삶과 죽음이 없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탄생게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인간이 가장 존엄하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쌓여있구나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라고 밝혔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첫째,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고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주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을 밝힌 것이다. 붓다는 '깨달은 분'이란 뜻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둘째,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고통이란 한계상황 속에 포위된 고해(苦海)임을 밝혀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중생에게 설해준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괴로움을 없애는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교리이다.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위대한 것이다. 사람이 하늘이고 부처인 것이다.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한 이 말씀을 선가에서는 깨달음의 핵심으로 삼는다. 똑같은 현상(세계)이라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느껴진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깜깜한 지옥이다. 내 마음이 부처이고, 내가 아는 세계가 나의 세상이다. 마음의 평화가 곧 부처님 세상이다.

욕심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들고, 고통스런 생각에서 벗어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즐거운 삶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지혜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오신날에 지혜의 연등을 밝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웃과 함께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물망처럼 살아가는 공업 공동체이다. 따라서 시대의 아픔과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간다. 독자적으로 홀로 살아 갈 수 없다.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상명령인 전법 교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법도생(傳法度生)이다. 자비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무상하게 변화하니 부지런히 변화에 대처하여 열심히 살아가라고 설하였다. 우리는 전미개오(轉迷開悟)해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해야 하고, 불교종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혁신하여 세상을 향도해 나가야 한다.

부처님은 영원한 스승이고, 중생이 살아가는 나침판이고 모델이다.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여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자.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가? 중생이 부처이다. 내 부모형제가 나의 보살이고 부처이다. 모두가 상불경보살이다.

社說

명상으로 이루는 '마음의 평화'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환희의 감로비와 함께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다. 올해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돕고,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힘쓴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를 언급하며 세계시민 모두와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런 평화의 정신이 국민 삶 속에 깃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K-명상'으로 대변되는 '선명상'을 강조했다. 명상을 통해 개개인의 정신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지혜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힘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도 명상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치인 평화. 물리적인 평화가 아닌 마음의 평화야말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차별이 없다고 설하신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실천하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인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일 때 1700년 한국불교의 얼이 열매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의 공포가 계속되고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루 10분, 짧은 시간만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이뤄보자.

도난 성보 환지본처에 부쳐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도난 · 은닉 성보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성보문화재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포항 보경사, 구례 화엄사, 전주 서고사 등 사찰 14곳에서 도난당한 성보들로 총 16건 32점이다.

32점의 성보 환수는 2020년 1월경 경매사에 불화를 출품해 처분하려다 범행이 발각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은닉해 온 불상과 불화 등 총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유산을 찾아내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입수문화재 몰수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문화재 원 소장처 환부결정에 따라 조계종에 환부됐다.

이는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2014년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에 따라 꾸준한 협력을 통해 도난 불교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성보의 환지본처는 문화유산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성보의 신앙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특히 예경의 상징인 불교 성보들은 사찰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지닌다.

앞으로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이 이뤄져야 도난 성보들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불자 대중에 주어진 숙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남국 노스님 말씀

남국의 남녘, 바닷길이 끝나고 대륙으로 건너가는 섬들의 길목에 서귀포 보목동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귤꽃 향기 가득하면 그리운 임이 오시는 날이다.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한 30여 년 전에 이곳을 처음 찾은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드문 남방의 돔 형태의 사찰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찰에 들어서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참배를 하고 나오니 자그마한 체구의 노스님이 나오셨다. 차담실로 안내를 받고 사찰을 짓게 된 유래를 들을 수 있었다.

"절 앞에 보이는 오름 이름을 아시는가. 제지기오름이라고 하지. 절지기에서 변형된 이름이야. 예로부터 '저즈기 오롬', '제지기 오롬', '제제기 오롬' 등으로 불러왔고, 한자 차용으로는 저즉악(貯卽嶽) · 저좌지악(貯左只嶽) · 저적악(儲積岳) · 사악(寺嶽) 등으로 표기하지. 그 오름의 남사면은 매우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는데, 중턱에 바위굴과 절터가 있어. 그 절을 지키는 절지기가 살았는데, 이로 인해 '절오름', '절지기오름'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제지기오름', '제제기오름'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에는 그 오름을 '불래(佛來)오름'이라고 했어. 부처님이 처음 오셔서 머무신 오름이라는 뜻이지. 아마도 깨달음을 얻으신 고승이 처음 당도해서 그 굴에 머물며 탐라국을 살펴보고 수행하기 좋은 영실에 존자암을 창건했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 후로 사람들은 이곳 보목동 불래오름을 절지기오름이라 하고 존자암 뒤편의 오름을 불래오름이라 하게 되었어.

어릴 적에 스님이었던 형님을 따라 영실에 가서 〈법화경〉 독송 기도를 많이 드렸어. 부처님께서 〈법화경〉이 설하신 곳이 영축산이잖아. 영실이 영축산의 여래향실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법화경〉을 부처님께 직접 설법을 듣는 마음으로 영실에서 비바람 겨우 가릴 수 있는 움막을 짓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여기서 쇠소깍을 지나 효돈천을 따라 올라가면 고려 시대 절터인 영천사지가 있고, 그곳 천의 한편에 '관나암'이라 새겨놓은 바위가 있어. 옛날에 섣달 그믐날 절에서 악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을 지켜보던 곳이야.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영천사의 스님이 새겼다는 기록이 있어. 때로는 영실 안쪽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때때로 그곳에는 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섭기도 했지. 하지만 그때가 그립고 형님도 그리워. 참 간절했는데. 형님이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후에도 새마을운동 때 쫓겨 나가기 전까지 기도했어. 지금은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 부처님 도량의 출발지인 이곳에 법화도량을 만들었어. 형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곁에 가셨을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진하셨는데. 형님은 해방 후에 왜색불교를 혁신하여 참된 불교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셨어. 옆에서 심부름하며 지켜보면서 무척 존경스러웠지. 지금은 늙은이가 되어서 이 도량에서 윤회의 모든 고통 벗어나 형님 따라서 부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어떨 때는 마치 영실에서 형님과 함께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국토로 가신 노장님을 생각하며 등불을 밝힌다. 지금은 그 도량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간절한 말씀은 가슴에 또렷하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